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 6

지역의 변화와 삶을 말하다

보역산박
문사증춘
동의인화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지역의 변화와 삶을 말하다

- 보문동 역사의 산증인 박춘화 -

지역의 변화와 삶을 말하다

- 보문동 역사의 산증인 박춘화 -

김숙자·김혜진·엄주웅·정승욱
정윤서·한시은·황나영·김지훈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6

지역의 변화와 삶을 말하다

- 보문동 역사의 산증인 박춘화 -

구술자 박춘화

지은이 김숙자·김혜진·엄주웅·정승욱

정윤서·한시은·황나영·김지훈

엮은이 김지훈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조태권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박춘화 · 성북문화원, 2022

ISBN 979-11-954544-7-1 03910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김지훈·장지희

발간사

주민들의 생생한 삶을 담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함께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북의 기록을 발굴하고 한데 모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기록과 성북학 자료의 축적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인 ‘성북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축적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서도 성북구 주민기록단 양성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마을기록화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주민기록단 교육은 2022년, 현재까지 한 해에 두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는 이러한 주민기록단 교육의 결과물로, 2020년에는 제1~3권, 2021년에는 제4~5권이 발간되었으며 올해 역시 구술자 두 분의 이야기를 담아 새로이 두 권의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에는 ‘성북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시선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북이라는 공간 속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통해 남아 있는 구술자 분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새로운 구술사적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구술생애사 책자의 주인공 두 분은 각각 보문동과 장위동의 토박이이십니다. 한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겪고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며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들을 꺼내어주신 구술자 두 분의 삶의 체험은 성북구 주민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성북의 숨겨진 이야기를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 자산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장위동과 보문동, 성북의 새로운 이야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북이라는 공간에 대해 큰 애정을 품으시고 8주간 진행된 교육과 과제에 성실히 임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술생애사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생생한 삶을 이야기로 들려주신 두 분의 구술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열정과 섬세함으로 주민기록단 교육을 이끌어주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기록단의 교육과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노력하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북문화원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성북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고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조 태 권

축사

다시 모인 우리, 다시 쓰는 성북의 역사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이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가 코로나로 고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언제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불편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2년에는 상황이 나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활동들을 예전처럼 대면 접촉을 통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북구 주민 기록단 활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6주간의 교육, 그리고 하반기 8주간의 교육 모두 함께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기록단 활동의 핵심이 대면 접촉을 통한 구술면담이라고 했을 때, 관련 교육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성별, 연령대, 주거지, 직업 등도 다채로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구술면담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성북구 토박이 두 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구술을 채록, 정리하여 간행한 이 책은 2022년 하반기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의 성과이자 최종 결과물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활동 과정에서 구술을 해 주신 분은 박춘화 님과 우덕수 님이십니다. 박춘화 님은 보문동에서 나고 자라셨고 우덕수 님은 장위동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성북구의 토박이로서, 성북구의 과거 모습과 변천사를 생생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술사는 국가나 민족 중심의 기존 역사 서술에서 소외된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성북구 토박이 두 분의 구술은 성북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간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장시간 구술을 해 주신 두 분 구술자, 박춘화, 우덕수 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열심히 구술사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구술면담에 나선 성북구 주민기록단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민기록단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성북문화원 선생님들께도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점차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함께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이 더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2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2022년 주민기록단 교육으로 시작된 구술생애사 책자발간의 여섯 번째 주인공은 보문동의 진짜 토박이 박춘화 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보문동의 건물·지형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도시변화에 대한 나름의 논리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많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사전에 전화와 문자로 충분히 대화주제를 조율한 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면 관계상 모든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구성은 ‘1부 맹꽁이 잡던 시절’, ‘2부 보문동의 변화와 성북천’, ‘3부 보문동 한옥과 전차’, ‘4부 대학생활과 직장이야기’, ‘5부 직장 의료보험과 사진활동’ 으로 주제에 따라 나누었고, 시간 순서대로 박춘화 님의 생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는 구술자가 태어나고 자란 보문동에서 보고 경험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따뜻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 맹꽁이가 많았던 고려대 애기능에서 놀았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6·25전쟁과 4.19혁명 이야기는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구술내용이었습니다.

2부는 보문동 일대의 변화와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60년대 성북천의 풍경과 정월대보름 때 보문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매우 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문동의 변화, 즉 한

옥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담담하게 구술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3부는 보문동의 한옥과 전차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보문동의 주거문화와 한옥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4부는 한양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과 졸업 후 다녔던 직장이야기입니다. 1960-70년대 유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음악감상실인 세시봉을 실제로 드나들었던 구술자의 증언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제주도과 목포여행이야기도 재미를 더 해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동양공업주식회사와 이직했던 한일연탄주식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한 1970년대의 노동현실을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의 노동환경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5부는 마지막 직장이었던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나중에는 공모전 수상으로 까지 이어졌던 사진촬영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이 책은 보문동에서 나고 자란 박춘화 님의 인생이야기를 뛰어넘어 한국근현대사의 중요한 지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를 관통했던 그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김 지 훈

차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맹꽁이 잡던 어린 시절	17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19
가족이야기	20
부모님에 대한 기억	21
식모(食母)이야기	22
종암초등학교를 들어가다	23
맹꽁이가 많았던 애기능	24
깡통 화약놀이와 소풍	25
6·25전쟁 이야기	27
4.19혁명을 목격하다	28
학창시절 먹거리	29
야구를 좋아했던 소년	31
2부 보문동의 변화와 성북천	33
보문동의 유래	35
성북천 풍경	36
정월대보름의 기억과 놀이	39
동망봉과 보문동 터널	39
덤바위산 채석장	41
보문시장	42
성북구 정치이야기	43
보문동의 변화와 생각들	44

성북천 복개와 목욕탕	45
90년 이후의 보문동 변화	46
3부 보문동 한옥과 전차	47
내가 살던 한옥	49
한옥의 장점	51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53
도시형 한옥의 분위기	54
보문동의 주거문화	55
보문동 전차	57
4부 대학생활과 직장이야기	59
한양대학교에 입학하다	61
세시봉 음악감상실	63
여행이야기	63
첫 직장 동양공업주식회사	64
임금 이야기	66
군대와 결혼	67
한일연탄주식회사	69
5부 직장의료보험과 사진활동	71
직장의료보험 교육받은 이야기	73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중추가 되다	76
신앙생활	80
사진에 대한 관심	81
사진공모전 수상	83
사진에 대한 생각과 계획	86
이미지 출처	90

동행

보문동유래

보문동마을의 역사

보문동은 1949년 8월 대통령령 제 159호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분리될 때, 신설동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설치된 것으로 당시에 관내에 있는 보문사의 이름을 따서 그 명칭을 제정한 것이다.

※보문사는 1115년(예종10년)에 담전국사가 창건하고 보문사라고 명명하였고, 1682년(숙종8년)에 종건되었다. 10여동의 당우(堂宇)로 형성되었고 여승의 수도처인 대가람으로서, 탑골에 있다하여 탑골 양반으로 더 알려져 있다.

● 이 지도는 2017보문동마을 계획단 실형서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약력

- 1947년 동대문구 안암동, 현 보문동 2가 출생
- 1959년 종암초등학교 졸업
- 1962년 휘문중학교 졸업
- 1966년 한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입학
- 1970년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70년 동양공업주식회사 입사
- 1971년 동양공업주식회사 퇴사
- 1974년 보문동 동사무소 병사계에서 보충역 전역
- 1974년 한일연탄주식회사 입사
- 1975년 결혼
- 1976년 첫째아들 태어남
- 1978년 둘째아들 태어남
- 1978년 한일연탄주식회사 퇴사
- 1979년 직장의료보험조합 설립위원 / 입사
- 1981년 셋째아들 태어남
- 1981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2002년 직장의료보험조합 퇴직
- 현 재 참빛사진실 운영

면담정보

1차

면담자: 김지훈, 주민기록단

면담장소: 보문동 주민센터 2층 강의실

면담일자: 2022년 10월 7일

2차

면담자: 김지훈

면담장소: 보문동 카페

면담일자: 2022년 11월 8일

※ 사전에 진행된 생활사 기록가 임진희의 인터뷰 녹취록 참고

01

맹꽁이 잡던 어린 시절



성북천의 봄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가정환경은 어떠셨나요?

저는 1947년 동대문구 안암동 195번지의 9에서 태어났고 서울시 동대문구 보문동 2가 47번지가 저의 본적입니다. 가정환경은 아버님께서 경성 운수부에 다니셨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아버님께서 이왕직(李王職)¹⁾ 재산 관리국 총무과장으로 가시게 돼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성장하게 되었죠.

1) 이왕직은 1910년 망국과 함께 대한제국황실(大韓帝國皇室)이 이왕가로 격하됨에 따라 기존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되었다. 구궁내부의 업무와 기능을 접수하여 이왕가의 인적 사항·재산·제사·도서·동물원·식물원·박물관 등 일체의 업무를 관장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족이야기

●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은 원래 모두 10남매가 되는데, 제 위로 형님 세 분이 어려서 돌아가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집안의 장남이 됐었죠. 그래서 3남 4녀, 7남매가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적지라고 말씀드린 데에 백부님이 살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안암동에서 다리를 건너서 큰길 지나면 보문동입니다. 지금의 보문역 근처죠. 거기를 사람들이 왕래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집에 아버님께서 형님에게 어릴 때 세발자전거를 사주셨어요. 보문동에서 안암동 쪽으로 건너오는 나무다리는 지금 안암동 주민센터 앞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나무다리에 구멍도 있었고, 그 나무다리를 건너오다가 구멍 난 곳을 미처 보지 못하고, 거기에 추락하시는 바람에... 제가 어머님한테 듣기로는 오랫동안 아프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 부모님께서 크게 상심하셨겠네요.

그때는 상심은 말도 못 하셨겠지요. 간혹 말씀을 하셨고, 제가 성장할 때도 얘기해주셨죠. 그 당시에는 호적을 올리는 게 굉장히 늦었어요. 부모님께서 어려서 형님 세 분을 잃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특별하게 자랐지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

● 선생님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님의 성함은 박갑성이고 1914년생, 어머니의 성함은 황양순 1922년생입니다. 우선 아버님은 사업이 너무 바쁘셨어요. 저는 또 어렸고, 당시에 해방되고 얼마 뒤에 6·25전쟁도 일어난 시기였죠. 저는 초등학교 가고, 아버님은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또 저녁에 들어 오셔서 어릴 적 기억은 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아버님이 항상 과자류 사 갖고 오셨어요. 퇴근해서 오시면 항상 사 갖고 오셔서, 어린나이에 그걸 기다린 적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늦게 오시는 분은 아니셨고요.

●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님은 정말 못해주시는 게 없을 정도로 뭐든지 우리들한테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수원분이었어요. 저는 동생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어머님 배려로 어려서부터 제 방이 있었어요.

휘문중학교 졸업식 (어머님과 막내여동생)

식모(食母)이야기

● 유복한 가정환경인데요, 그럼 가사도우미도 있었나요?

60년대는 어느 정도 잘사는 가정이면 지금 얘기하는 가사도우미가 많았죠. 그 당시에는 식모(食母)라고 불렀죠. 그런 분들이 한 집에 대부분 다 있었어요. 그때는 한 식구 입을 털어내는 게 가족에는 도움이 되는 시대였어요. 끼니를 잇는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지만 오죽하면 밥하고 빨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로 자녀들 보내겠습니까. 입 하나 덜라고.

●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름은 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48년생이었어요. 얼굴도 기억나고요. 그분이 69년에 충남 논산으로 시집을 갔어요. 어머니가 혼수도 해줬어요. 물론 매달 월급도 줬었어요. 1960년 초부터 8-9년 있었어요. 어려서 와서 성장한 뒤 시집까지 갔죠.

종암초등학교를 들어가다



종암초등학교 졸업식

●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종암초등학교 나왔어요. 당시에는 학생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졸업할 때는 14반까지 있었어요. 당시에 3부제 수업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학생 수는 한 반에 60명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로서는 학생 수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 선생님이나 친구들 기억나시죠?

학년 올라갈 때마다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그랬는데,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나요. 그때 중학교를 가야되고, 공부도 해야 할 시기라서. 6학년 담임 김하도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그 분만 존함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친구로는 한두 명 생각나는 친구는 있어요.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웃에 사는 정선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 갔어요. 70년대 말까지 연락이 되다가 이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 초등학교 다니던 풍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초등학교는 걸어 다녔는데,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쪽으로 갔어요. 원래는 농대라고 부르긴 했는데, 당시에는 그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학교 가는 길은 오솔길이었어요. 지금 고대병원 있는 언덕길은 없었어요. 안암역이랑 개운사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없었고, 그냥 산등성이었어요. 고대 자연계를 끼고 오른쪽으로 오솔길이 있었고, 그길로 해서 안암오거리 교차로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경마장이랑 말 축사가 있었어요. 영화배우 이덕화 씨 아버지인 이예춘(李藝春) 씨가 아침마다 말을 타러 다니셨어요. 이예춘 씨도 영화배우였죠. 전체적으로 한적한 그런 동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맹공이가 많았던 애기능

● 학교 등교시간 외에는 뭐하고 지내셨어요?

어려서야 동네에서 놀았고, 성북천보다도 놀이터에 많이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고대 자연계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변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밭이었어요. 거기에 우리들이 부르는 ‘애기능’²⁾이라고 어떤 왕족의 능이 큰 게 있었어요. 거기는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었죠. 양쪽으로 무밭, 배추밭

2) 애기능은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의 무덤이었던 인명원지(仁明園址)를 달리 부르던 말이다. 지금의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근처였는데, 1950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의 후궁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도 있었어요. 거기가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땀뽀이가 많이 보입니다. 친구들이랑 땀뽀이 잡으러 많이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장마철 오면 땀뽀이 소리가 컸어요.

● 땀뽀이는 개구리랑은 다른 종류죠?

땀뽀이는 개구리하고는 다르죠. 땀뽀이가 많았어요. 땀뽀이가 우는 소리는, 개구리 우는 소리랑 달라요. 개구리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를 먹은 적도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도 있네요.

강릉 화약놀이와 소풍

● 땀뽀이 잡는 거 말고 다른 놀이도 하셨나요?

애기능이라고 부르던 곳은 오염된 곳이 아니었어요. 동산처럼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지금의 삼익아파트(안암동4가 135) 뒤쪽입니다. 그때는 여러 명에서 몰려다니기 보다는 형, 동생하는 사이끼리 몇 명만 다니고 그랬어요. 6·25전쟁 때 거기다가 화약을 많이 묻고 갔어요. 군인들이 철수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랑을 파면 화약이 작고 까만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물에 씻어서 채 거르듯이 하고 화약만 강릉에다가 넣어요. 화약 물기가 빠지면 거기에 불을 붙이면 화약이 타는 거죠. 그 놀이는 위험한 건 아니었어요.

● 소풍도 가셨죠?

초등학교 때는 창경궁에 가는 것이 아주 최고였던 걸로 기억돼요. 그리고 6·25전쟁 끝나고 힘든 시절이니 소풍간 적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되고요.

중학교 때는 진관사로 갔던 기억이 있네요. 고등학교 때는 소유산도 갔었고, 북한산 비봉(560m)도 갔죠. 담임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어서 진흥왕 순수비 있는 비봉을 저희 반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억되고, 경주로 수학여행도 다녀왔었어요.



경주 불국사 수학여행

6·25전쟁 이야기

● 6·25전쟁에 대한 기억은 있으세요?

제가 전쟁시기에는 너무 어렸으니 정확한 기억은 없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초등학생 즈음 되니 기억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전쟁 통에는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는 끼니를 거르거나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피난시절에는 군포에 고모님이 사셔서 그리로 피난을 갔어요. 1950년 9월 28일에 서울 수복되고 난 뒤 다시 1.4후퇴 때 군포로 갔었어요. 아무리 전쟁 통이지만 저는 형들을 따라 다니면서 놀 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인데, 형들이랑 새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논 웅덩이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동네분이 오셔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새를 잡아서 논 웅덩이에 넣고 놓고 그랬거든요.

또 4-5살 무렵, 시골에는 땀감이 없으니 나무를 베어서 쓰잖아요? 이때 나무를 낫으로 쳐요. 그러면 밑둥이 뽕죽하니깐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마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약도 없어서 석유 같은걸 막 부어서 지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6·25전쟁 자체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4.19혁명을 목격하다

● 4.19 혁명 때는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4.19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 2교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중간에 끊으시고,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학교 나오면서 봤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종로경찰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보다는 궁금해서 따라가게 되잖아요?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좀 지나갔는데 지프차에 부상당한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죠. 당시에는 자세한 사정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학생들이 운전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제일 가까운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니깐 그쪽으로 싣고, 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국동 로터리에서 화신백화점 쪽으로 내려갔죠. 거기에도 사람이 꽉 찼어요. 학생들도 꽉 차 있고. 다시 화신백화점에서 종로 방향으로 갔어요. 선생님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그제서야 “집에 가야되겠다” 싶었죠. 다시 서울대병원 쪽으로 오니깐, 의사랑 부상당한 사람들이랑 뒤엉켜 있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혜화동을 통해서 집으로 왔죠.

●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친 학생들이 병원으로 오고 그랬죠. 호기심보다는 처음 보니까요. 다쳐서 피를 흘리는 걸 처음 본거죠. 걸어서 성북경찰서 앞에 오

니깐 거기에는 큰 청소차가 길에 누워있는 거예요. 완전히 전복이 돼 있는 거야. 당시에는 그곳이 아스팔트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흙길이었어요.

학창시절 먹거리

● 휘문중학교 들어가셨는데 입학시험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통학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때는 시험보고 갈 때니깐 입학시험이 당연히 있었죠. 학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돈암동까지 가면 태극당³⁾ 앞애가 전차 종점이었었거든요. 그것을 타고서 원남동 지금 창경궁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방법이죠. 지금 현대빌딩(종로구 원서동140-2)이 있는 데까지요. 거기가 휘문중·고등학교 자리거든요.⁴⁾ 현대건설이 있는 그 건물위치가 예전에는 저희 학교였어요. 또 하나는 지금 보문역 위치에 버스가 다녔었거든요. 돈암동 쪽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서 종로3가 까지 간 뒤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었죠.

3) 2022년 현재 태극당은 사라지고, 버거킹이 입점해 있다.

4) 휘문중학교는 설립 후 72년간 종로구 원서동206 부지에 있었는데, 1977년 9월 강남구 대치동 952-1로 이전했다.(휘문중학교 홈페이지)

● 학교 다닐 때 뭐 많이 드셨어요? 간식거리도 좋고요.

그 당시에는 뭐 사탕이나 삼베이(일본어 센베이, せんべい)⁵⁾ 과자라는 게 있어요. 일본어라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가게에서 구워서 팔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빵집을 갔어요. 지금은 돈암동 태극당은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곳이었죠.

● 도시락은 가지고 다니셨겠네요.

당연히 싸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도시락이랑 다섯 과목 책을 넣어서 사람 많은 만원 전차를 타는 거죠. 책, 노트하고 도시락까지 들어가면 한 짐이죠.

● 김치국물이 새거나하는 일화는 없으셨어요?

그 시절 김치 냄새는 보편적이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김치를 싸준 적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국물이 새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도시락 반찬은 계란말이랑 장조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콩자반도 먹었지요. 콩자반은 일상이었을 거예요. 집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 일본 화과자의 일종. 주로 쌀가루를 반죽해 굽거나 튀겨서 소금이나 간장, 설탕 등 향신료로 맛을 낸 일본의 전통과자로 여러 가지 만드는 모양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야구를 좋아했던 소년

● 청소년 시절에 선생님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때는 야구를 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휘문고등학교가 야구를 참 잘했었어요. 농구도 잘했고요. 그때 농구랑 야구하면 시험 때도 응원을 가기도 했었죠. 그때 경동고등학교에 백인천⁶⁾ 선수라고 있어요, 백인천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일본으로 스카우트 되어 갔어요. 왜 그분이 기억이 나느냐 하면, 그 선수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가 결승전에서는 꼭 지고 준우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박혀 있습니다. 응원을 갔다가도 풀이 죽어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야구는 우리 선배들이 잘 했었고, 중학교 다닐 때 야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지요.

● 특별히 잘하던 과목이나 특별한 자질이 있으셨나요?

사회나 역사는 거의 만점을 받다시피 했었어요. 그 과목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 나관중(羅貫中)이 쓴 삼국지연의를 다 읽었었어요. 그걸 한 세 번 읽었어요. 굉장히 몰입이 됐었어요. 또 김동인 장편소설 『운현궁의 봄』도 기억에 남아요. 그 소설은 흥선대원군을 주제로 한 소설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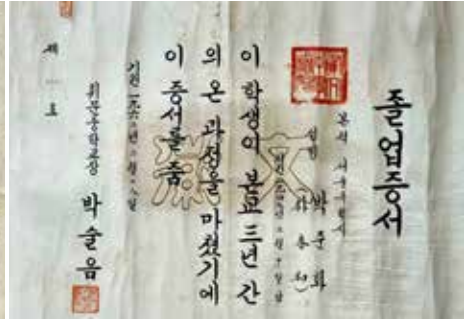
6) 1942년생.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선수 겸 감독을 맡은 인물이다. 오랜 기간 방송에서 일본프로야구 담당 해설자로 활동했다. 현역 시절 포지션은 포수와 외야수였다.

● 삼국지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제일 좋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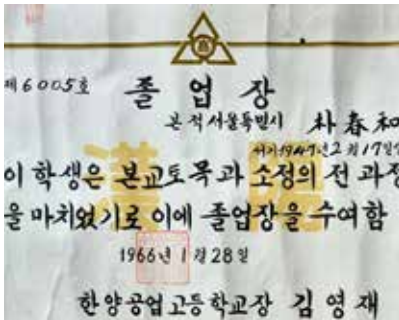
제갈공명하고 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의 정서적인 건 아니지만 공명과 관우의 유비에 대한 깊은 충성심, 유비의 공명에 대한 예우와 관우에 대한 형제애에 감동을 받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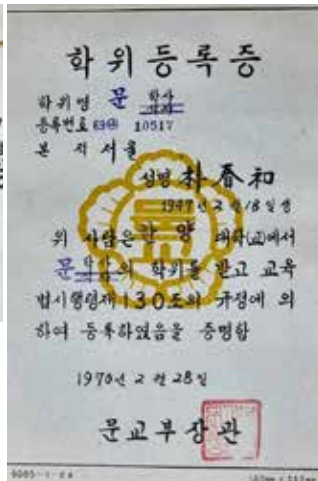
서울중앙초등학교 졸업장(1959.3.20.)



회문중학교 졸업장(1962.2.28.)



한양공업고등학교 졸업장(1966.1.28.)



한양대학교 학위증(1970.2.28.)



연세대 경영학석사 학위증
(1981.8.28.)

12

보문동의 변화와 성북천



성북천의 가을

보문동의 유래

● 보문동에서 오래 사셨지요?

그렇죠. 군복무를 보문동 동사무소 병사계에서 1년 5개월 정도를 근무했고 평생을 살아와서 다른 사람들 보다는 편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 보문동 이름이 보문사에서 유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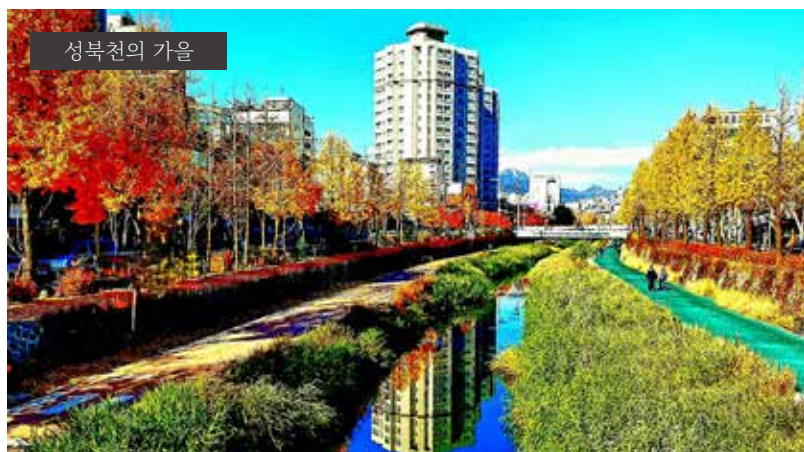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보문사보다도 50년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여기가 모랫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에서 내려와서 보문역이 있는 그 부분을 모래가 많아서 그렇게 불려왔어요.

성북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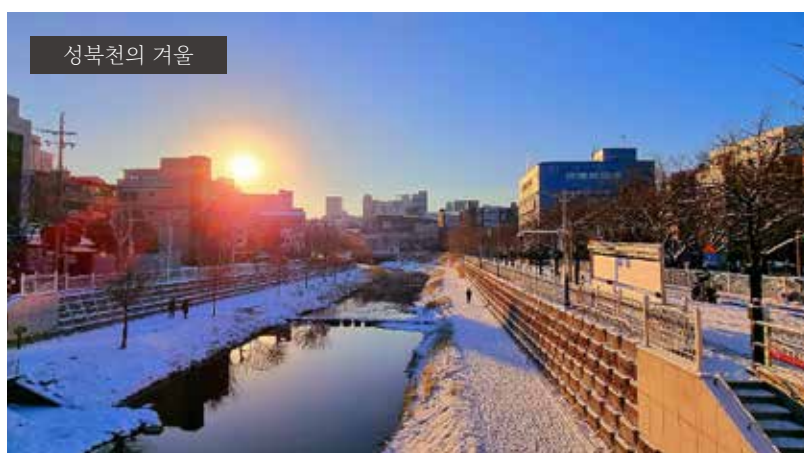
● 보문천은 성북천, 안암천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구분 안했어요. 그냥 뭐 보문천이라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개천이라고 불러왔어요. 최근에 보문천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성북천은 하나죠. 성북동에서 내려와서 삼선교를 거쳐서 보문동으로 온 뒤 청계천하고 만나는 거죠.





성북천의 가을



성북천의 겨울

● 과거 성북천 주변은 어떤 풍경이었나요?

어린 시절 성북천은 놀이터였어요. 제가 종암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안암동오거리 부근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풍경은 학교 담 밑에 돼지사육장이 있었어요. 포도밭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자연계캠퍼스 쪽에는 변전소가 있었고, 배추밭 등 채소 같은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또 맹꽁이들도 참 많았어요. 그렇게 그 시절에는 완전히 한가한 농촌의 풍경을 지닌 도시라고 할까요. 보문동, 안암동 일대가 그렇게 한적했었어요. 그리고 성북천은 당시에 하수처리가 안돼서 대부분의 생활용수가 흘러들었죠. 그러다보니 위생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문시장 자리에는 다시 신축을 하려고 있죠. 거기에 하천변을 끼고 판자촌들이 들어섰었어요. 시장 쪽으로는 무허가 점포들이죠. 지금 성북천 인도는 정비가 잘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전부 상점 또는 무허가건물이고, 염소도 기르고 했어요. 6·25전쟁 끝나고 1960년대 접어들기 전까지는 난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성북구청 뒤에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샘물 나오는 곳이 있었죠. 돈암동성당 맞은편으로 기억해요.

정월대보름의 기억과 놀이

● 성북천에서 보았거나 경험한 일이 있으세요?

사실 50년대만 해도 참 무질서했었어요. 하천이라고 해도 물고기 하나 살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수구에 생활용수가 그냥 나오니까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정월 보름 기억이 있어요. 그때 시장 사람들이 성북천 주변으로 나와서 술 먹고 옷놀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취하면 싸움하고, 저는 어렸으니 그런 거 구경하는 거죠. 성북천에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좀 죄송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장 사람들이 개를 성북천 나무다리에 걸어 놓고선 때려잡는 거야. 그리곤 사람들이 거기에 술걸어 놓고 해 먹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이니 뚜렷하게 기억이 나죠. 아주 50년대에는 말도 못했어요. 개잡아 먹고. 그게 일상화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보문시장에 막일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동망봉과 보문동 터널

● 동망동에 얽힌 이야기도 혹시 아시나요?

동망봉이야기는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동망봉이 종로구에서 성북구로 이전해서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동망각을 새로 지었고. 단종이 영월로 가니깐 단종비(정순왕후)가 이 지역 제일 높은 곳에 조석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한

평생을 지냈다는 이야기로 영조47년(1771)에 정업원구기비(淨業院舊基碑)를 세우고 이 봉우리 바위에 동망봉(東望峰) 석자를 친필로 새겼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망각의 모습

● 동망봉 터널은 어떻게 뚫렸나요?

근자에 와서 된 거니까요. 생활편리를 위해서 그랬죠. 주로 왕래가 이루어지는 게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통로는 청량리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청량리가 전차 종점이었던 거든요. 터널이 조성되기 전에는 미아리, 돈암동 쪽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신설동 쪽으로 나가 우회해서 동대문, 종로로 가는 게 당연히 되었던 것을, 터널이 해결해준 겁니다.

● 그럼 보문동이 성북구가 동대문구였다가 성북구로 이렇게 합해진
게 그 편리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6·25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이 서울로 모여 들었죠? 도시로 와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깐, 급속히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리랑 고개는 비포장 도로였었고, 돈암동에서 미아리고개 넘어가는 길도 확장이 안 되어있을 때였죠. 무슨 얘기냐면 6·25전쟁이 끝나면서 산동네들, 지금 한신아파트 있는 쪽이(동신초등학교 앞) 확장이 됐고 무허가집이 들어서는 거죠. 사실은 재개발로 아파트가 생겼다는 것은 예전에 무질서한 주택들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덤바위산 채석장

● 채석장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용문고등학교 뒤에 ‘덤바위산’ 이라고 부르는 곳이 채석장이었어요. 어릴 때는 “덤바위산 가서 놀자” 라고 그랬어요. 성신여고 쪽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넘어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보면 덩바위산이라고 채석장이 보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거기서 놀기도 했지요.

보문시장

● 보문시장 모습은 기억나세요?

시장이라는 게 오죽합니까. 지금 기억에도 물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좌판도 깔아놓고 시장이라고 해봐야 개천부터 해서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죠. 개천 벗어나서는 천막도 치고요.

● 큰 시장은 아니었나 보네요?

큰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있었으니까요. 안암동에서부터 보문동까지 이용해야 되니깐. 지금은 보문시장이 거의 없어진 거죠.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지가 벌써 몇 년 되었죠. 새로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서 하나 둘 없어진 거지.

● 보문시장에서 추억이나 있었던 일이 있으신지요?

정육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의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신문을 팔고 가면 고기를 샀어요. 당시는 신문에 팔아서 고기를 샀는데, 50년대 당시에는 신문 보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개월에 한 번씩 신문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고바우영감 만화가 실린 ‘동아일보’였을 거예요.

성북구 정치이야기

● 1955년 안암동에 생긴 동양의약대학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동양의약대학은 경동교회 뒤편에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연립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어. 무슨 시위냐면, 6·25전쟁 끝나고 휴전 반대한다는 거. 그 당시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무렵에 시위하는 걸 봤어요.

● 혹시 시위방법이나 구호가 생각나세요?

주변 학생들이 몇 명씩 스크럼(scrum)을 짜고 앞에 현수막을 들고 큰길로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쫓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구호는 “휴전반대”로 기억이 있어요.

● 또 다른 정치적 사건도 기억하시나요?

보문동에서는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바람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니깐 굵직한 사건들만 기억나고요. 우선 조병옥(趙炳玉, 1894-1960) 박사님이 돈암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야당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성북구 기질이 야당 쪽이에요. 조병옥 씨가 살면서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도 아는 사실이었죠. 그 시대에는 조병옥 씨가 굉장히 영향력도 컸고 대단했죠. 큰 정치적인 인물이세요.

보문동의 변화와 생각들

● 보문동의 1970-1980년대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우선 50-60년대는 좀 특별한 시기 아니겠어요? 전쟁을 겪었고, 그 뒤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시기였죠. 70-80년대를 생각하면 새마을운동이 완전히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으로 고속도로에 고속버스들도 다니게 됐고, 생활환경도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합니다. 생활 변화는 연탄을 원료를 사용하던 구조에서 완전히 석유나 등유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80년대 지나면서는 가스(gas)가 사용하기 시작했구요. 그러면서 한옥의 구조는 이런 생활변화와 맞지 않으면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앞날을 내다보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는 바람에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그럼 보문동에서 한옥이 사라진 이유는 자본의 논리라고 볼 수 있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하고 관련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6·25전쟁 때문에 서울이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대문 안은 개발을 제한하고, 사대문 밖만 개발을 허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대문 안을 옛 모습으로 복원했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서울은 아주 명품 도시가 됐을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아쉬움이 많죠. 로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제가 로

마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대부분 옛 모습이에요. 원형경기장이고 뭐고. 문화적으로 보면 600여년이 된 서울은 이야기꺼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성북천 복개와 목욕탕

● 성북천 복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삼선교위의 성북천은 물론이고 지금 나폴레옹 제과점 앞에서 삼영사우나(삼선동4가9-6)까지 복개가 되었으며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가 다시 철거하고 복개도 뜯어냈어요.



비오는 날의 성북천

● 예전에는 주변에 목욕탕도 많았나요?

보문동에 3개의 목욕탕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목욕탕 일 년에 한 두 번 가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씻고 그랬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도 특별한 날에만 갔어요.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을 지금은 상상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90년 이후의 보문동 변화

● 1990년대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1990년대는 완전히 도시화 된 거죠. 여기는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서서히 가게도 많이 들어서고, 상업적인 시설도 많아져서 도시화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문동에 한옥이 많은데요, 그럼 이 한옥들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한옥 주변이 많이 바뀌었죠. 하천도 정비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겐 좋죠. 자연하천으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한 건 아니죠. 완전한 하천생태계를 우리가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준비가 되지 않은 보행로만을 운영한 게 아닌가 합니다.

아파트들도 생기긴 했는데, 그로인한 갈등이나 마찰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토지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고요.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울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니 “거기에 따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분들의 입장에서선 배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의 문제지, 개발자체에 대한 불만은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13

보문동 한옥과 전차



성북천의 가을

내가 살던 한옥

● 선생님 한옥에 사셨죠? 그럼 집의 구조는 어땠나요?

중학교 입학하면서 제 방이 생겼어요. 방은 4개가 있었어요. 전 한옥에서 태어났고, 크기는 한 30평정도 됩니다. 우선 들어가면 바로 마당이 보이고, 마루를 통해서 안방, 부엌이 연결되어 있죠. 마당 한켠에는 장독대고 있었고. 방 옆에 광이 있었어요. 특별한 건 부엌에 쪽문이 있어요. 각 세대마다 쪽문이 있었어요. 도시지만은 나름의 이웃 공동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1976년 보문동 한옥 전경(출처: 서울역사박물관)



1990년 보문동 한옥 전경(출처: 서울역사박물관)

● **한옥이 들어서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집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 나시는지요?**

그냥 밭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왜냐면, 보문동 우리 집 맞은편에도 50평 집들이 듬성듬성 여럿 있었어요. 밭 옆에 콩나물공장도 있었어요. 전부 건물들이 다 지어진 게 아니었어요.



삼선동 도시형 한옥

한옥의 장점

● **한옥 생활이 궁금합니다.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출생해서 45년간을 한옥에서 살았어요. 적지 않게 산거죠. 45년이면 역사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한옥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좀 남달라요. 우선 한옥에 대한 구조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건축물 한 울타리에서 자연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주거 안에 자연과 인공이 한 곳에 이루어진 데는 없거

든요. 한옥만의 특징이 그걸 한 공간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당은 자연이거든요. 방에서 나오면 바로 별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서는 잘 보였는데, 요즘은 안보이죠.

또 한 가지,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져 있는 점입니다. 온돌문화와 마루문화가 함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 **한옥에 장점이 많네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한옥 지붕의 추녀가 깊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과 관련 있냐면, 동지(冬至)하고 하지(夏至)하고 일조차이가 상당히 크죠. 하지 때는 태양이 75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쬰잖아요. 동지 때는 45도 각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45도로 들어오면 조도가 방 안쪽 바깥쪽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식 건물에는 전등이 없으면 사용 못하는 구조죠.

추녀가 있다는 건 여름에 약 75도 정도로 빛이 떨어지잖아요. 아주 강렬하잖아요. 한옥 마당에 지금은 시멘트를 깔아놓은 곳이 많지만, 예전엔 백토를 깔았어요. 그러면 퇴약별이 백토에 떨어지죠? 추녀부분은 그늘이니깐 서늘해요. 마당의 더운 기운이 올라가면서 공기의 대류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히 방문만 열어놓고 여름에 발만 치면 시원한 거죠. 한옥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엌과 거주하는 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밥을 나르는 불편이 있지만 장점이 많은 집입니다. 우리가 “한옥은 불편한 점이 많아” 이런

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게 한옥이에요. 아무튼 저는 한옥이 참 좋습니다.



삼선동 도시형 한옥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 그 때 연료는 주로 그 연탄을 때셨나요?

석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기 시작했지요. 해방 후 구공탄이란 것이 등장했지요. 구멍이 아홉 개밖에 없어요. 또 나무도 땔감으로 쓸 수가 없었고요. 5.16이 일어나고 나무를 절대 쓰지 못하게 했고, 연탄을 사용하는 건 주로 난방과 취사였었어요. 석유는 6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편리해진 게 LPG가스라고 길쭉한 둥근 통처럼 생긴 게 있죠. 지금도 옛 성북전화국 쪽

에는 LPG가스를 설치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1992년에 보문동에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에 한옥에서 새집을 지을 때 태양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태양광 설치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 **당시에 태양광도 사용했나요? 변화를 많이 겪으셨네요.**

당시에는 지금 많이 사용하는 태양광하고 다릅니다. 한옥에 살 때 연탄광이 있어서 겨울에는 연탄 몇 백 장을 들여놓고 김장하면서 동절기를 지내는 거죠. 도시가스로 가면서 연탄이 슬슬 없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죠.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은 연탄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도시형 한옥의 분위기

● **한옥이 많을 때 동네 분위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아직 학생이라서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구요. 다만 보문동은 아주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사건사고도 없는, 술 취한 사람을 본적도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술 취한 사람을 본적이 없는 데가 보문동이에요. 근데 도둑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도둑을 한 번 맞은 적이 있으니까요. 당시 집에서 은수저를 썼었어요. 그 은수저들 훔쳐갔어요. 다 그런 건 아

니지만, 당시 도둑들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죠. 도둑들이 순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각박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물론 삶은 절박했겠지만, 악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그냥 물건만 조용히 갖고 갔습니다.

● 보문동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나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땅값, 집값이 비싸니까 웬만한 사람은 못 오는 거죠. 김재규도 집을 짓고 살았고, 검찰총장, 종로경찰서 서장집도 있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니깐 어떤 변화를 못 느꼈어요. 물론 낙산이나 도성밖 쪽으로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외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나합니다.

보문동의 주거문화

● 한옥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보문동의 주거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보문동은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가족들 간의 만남의 시간들 줄어들고 있지요. 그래서 문화원 같은 곳에서 사료발굴을 우선적으로 하고, 목적을 갖고 사업을 진행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자를 발간하는 작업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인데, 자녀들의 입시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주거문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하지 않나합니다.

● 포괄적인 정신문화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문화라는 게 없다고요. 대학을 가야하니깐 다른 건 다 두고, 문화적인 것들은 모두 단절되거나 매몰돼 버렸어요. 문화원에서 아무리 좋은 홍보물을 갖다 줘도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 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문화도, 주거문화냐, 정신문화인거나, 생활문화냐. 또 밥상문화도 있듯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문화가 없습니다.

● 앞으로 보문동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거나 보완해가면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더욱 “돈의 논리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암울하죠. 이곳에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고 하면 참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동네에선 끝자락에 한옥집을 지금의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1992년도에 집을 바꿨으니까요.

● 가장 좋아하는 보문동의 장소는 어디예요?

어려서 자라면서 보았던 장소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네요. 안암동주민센터 위로 쪽 올라가다가 오른쪽을 보면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맞은편이 과거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으로 올라 다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주변이야 완전 많이 변했지만 계단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왜 안 변했을까요. 그리고 대광초등학교 근처놀이터입니다.

보문동 전차

● 보문동 주민들이 신설동 지나는 전차도 자주 이용했어요?

이용할 게 거기밖엔 없었으니까요. 시내로 나간다고 하면 신설동에 나가서, 전차로 시내로 가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버스가 있는데, 버스는 정릉에서부터 내려오는 버스가 있었고요. 전차 요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학생 때는 한번 내고 마는 회수권을 썼어요. 한 달에 50장 정도씩 어머니가 주셨죠. 정류장에는 회수권을 팔았고, 특별한 거는 그런 곳에서 전차표주면 사탕도 주고 그랬어요.

● 당연히 승객이 많았겠지요? 어떤 분위기였나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가능한 걸어서 멀리까지 가서 탑니다. 일부러 중간에 안타고요. 그러면 편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버스로 말할 것 같으면 50-60년대에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지요. 버스도 사람을 완전 태웠어요. 그래서 기사분이 출발 후 좌우로 운전대를 틀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쏠리잖아요. 그래서 겨우 문 닫고 출발하고 그랬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가려면 그게 아주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돈암동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탄 뒤 내려서 걸어갔죠.

●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등교시에 학생뿐만 아니라 만원이었습니다. 하교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전차를 오래 기다린 적은 없어요. 그냥 수시로 다니는 정도였지요. 노선은 청량리에서 신설동, 동대문, 종로 서울역까지 가는 게 기본이었어요. 지금 성신여대 태극당 자리가 종점이었죠. 미아리고개 넘어가기 전예요. 거기서 타면 창경궁, 종로를 통과해서 진명여고 부근까지 갔어요. 진명여고는 강당이 있어서 행사가 있으면 갔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노선은 주로 그렇게 있었고,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며 1963년도에 라면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원이었어요. 비싼 편이죠. 손님 오면 대접해드렸을 정도니까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천천히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차표를 사용안하고 아껴서 간식이나 그런 걸 사먹었어요. 일부러 걸어오는 거죠.

14

대학생활과 직장이야기



성북천의 겨울

한양대학교에 입학하다

● 선생님 이제 한양대학교 시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리대 사학과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깐, 초기에는 한일회담반대, 그리고 민주화운동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였었지 않나 그래요. 휴교를 자주 했어요.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이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과 정원 외에 청강생들이 있었어요. 또 기억나는 건 정원이 40명이었는데 40명 중에 12명이 남학생이고 나머지가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팅 다니고 할 이유가 없었죠. 여대로 남학생들이 미팅가고 그랬거든요. 사학과뿐만 아니라, 한양대 문리과대학 안에 여학생이 많았습니다.



한양대 졸업 사진(왼쪽에서 두 번째)

● 대학 등교는 어떻게 하셨나요?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 사진

취문중 다닐 때는 전차나 버스 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 때는 약 25분 정도 걸어 다녔어요. 학생 걸음이니깐 빨리 갔었죠. 대학 때 집에 자가용이 있어서 그걸 타고 다녔어요. 운전기사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에 올 때는 버스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끝나면 놀러 다니기 바빠서 집에 바로 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세시봉 음악감상실

●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지금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았지만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당시에는 통기타 시대였으니까, 조영남 씨와 윤형주 씨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때 세시봉 음악감상실이 있어요. 무교동에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종로 2가 YMCA건물 옆에 있던 ‘디셔네’도 유명했고, 명동에는 ‘학사주점’이라고 있었어요. 막걸리도 마시러 가고 그랬어요. 명동에 ‘오비스케빈’은 생맥주 마시는 곳이었었는데 당시에는 꽤 비싼 곳이었죠.

클래식 감상하던 ‘르네상스’라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보다는 세시봉에 자주 갔어요.

여행이야기

● 학업은 어떠했는지요? 또 여행도 많이 다니셨나요?

시대적으로 좀 어수선했고, 휴교령도 자주 떨어졌지만 연장수업이나 보충수업도 했어요. 학교 내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단지 정치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었지요. 저는 학업에 큰 문제 없이 다녔습니다.

여행은 어려서부터 무척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주도를 두 번 갔다 왔으니까요. 부산으로 해서 간적도 있고요. 친구 둘이서

다녀왔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모여서 다니질 않았어요. 목포에서 배 타고도 갔어요. 당시에는 멀리 가면 하룻밤 자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배가 바로 가지도 않아서, 엄청 기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열차는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한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는 대학교 때 봄·가을 답사 자주 간 게 기억이 나네요. 길게는 3박 4일, 짧게는 2박 3일 그렇게 갔었어요. 일 년에 2번씩이니 간 총 8번을 갔었죠. 그러다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지요. 친구들과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외국 나가고, 세상 떠난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도 친구 여섯 명은 계속 만나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만났고요.

첫 직장 동양공업주식회사

● 이제 졸업하시고 직장에 들어가셨겠네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희망과 목표를 갖고 직장을 준비하지만 제가 직장 구할 때인 70년대 초만 해도 달랐어요. 6·25전쟁이 끝난 지 17년이 되지만 먹고사는 문제들이 시급했거든요. 그게 제일 과제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사실 대학 다닐 때 저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교사를 희망했었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는 생활을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어요.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실 자격증만 있으면 갈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지요. 근데 제가 가려던 곳이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장화 없으면 못 다닐 때였어요. 아무튼 이런 저런 일로 잘 안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너 그러지 말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근무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죠. 그 회사가 동양공업주식회사였어요. 우리나라는 그 즈음 처음으로 자동차생산을 하려던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자동차 기어(gear), 베어링(bearing)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당시 조금 앞서가는 회사였죠. 영등포구 양남동에 있었는데, 보문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예전에 버스타고 강을 건너 영등포까지 가려면 아주 보통 어렵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여섯시에 나와서 가야했어요. 근데 이때가 전태일 군이 분신했을 때예요. 1970년대, 그러니깐 노동환경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마 생각을 못할 거예요. 제가 6시에 나가서 집에 오면 밤 10시가 돼요. 당시 노동환경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 보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거죠. 화장실 가기가 바쁠 정도의 업무량도 그렇고요.

● 어떤 일을 하셨나요?

총무과의 노무담당이었어요. 저는 계속 사무직에만 있었죠. 노무담당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로자들 출퇴근 확인하고, 사고 유무도 있는지 보는거죠. 그리고 점심, 저녁, 야식 챙겨야 하고.

9시까지 출근하면 보통 저녁 8시까지 있는 게 통례였어요. 그러니깐 야식도 줘야 했지요. 건강검진도 챙겨야 했는데, 그건 좀 형식적이었어요.

●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당시 일하시던 분들이 죄를 만지는 사람들이고, 육체노동을 하시니까 아주 무서웠어요. 제가 업무지시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질색을 했어요. 또 사무직원들과 노무자들이 식당에서 밥을 따로 먹었어요. 근데 제가 같이 가서 먹은 적도 있었는데, 그 뒤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형, 이렇게 좀 해줘” 이러면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인지 협조도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하기가 무서웠는데, 차차 달라졌어요.

임금 이야기

● 업무분위기나 당시 노동현실은 어떠했는지요?

그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유명무실했어요. 그냥 형식적이었죠. 예를 들면 잔업수당은 1.5배를 줘야 되거든요. 기본급은 원래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급을 10시간으로 하는 걸로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1시간에 8천원이라고 치면 잔업

을 하면 1.5배되니깐 약 만이천원이 되지요. 근데 이걸 10시간 전부 팔천원을 해놓고선 역산을 하는 거죠. 10시간을 쪼개서 기본급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그랬었어요. 총 예산이 500만원이면 8시간으로 500만원이 아니고 10시간에 500만원으로 역산을 하는 거예요. 2시간이 포함된 것 같지만 이게 기본급인 거예요. 그런 구조가 계속 되었습니다. 제가 총무 일만 맡았고, 작은 회사도 아니었어요. 연탄 옮기는 차가 몇 백 대씩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연장근로 휴일근무 퇴직금산정 등에 영향이 갈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근로자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죠.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당시에는 10시간 일하는 게 통상이었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군대와 결혼

● 그럼 군대는 언제쯤 가셨어요?

동양공업주식회사는 1971년 12월까지 했을 겁니다. 12월까지 근무를 마치고 군에 가게 되었죠. 근데 당시에 ‘필보’ 라는 게 있어요. 보충역이라고 하는데 흔히 방위라고도 부르죠.

보충역은 훈련기간이 3주였는데, 군 훈련기간이 6주에서 3주로 변경 적용된 게 제가 1기예요. 그걸 마치고 보문동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병무담당으로 배치되었어요.

그래서 병사담당의 보조 일을 했어요. 병사들이 제대하면 병적카드 작성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때는 군복도 없어서 그냥 사복입고 일했죠. 사실 군복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어요. 사복입고 근무하니깐 동네사람들은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줄 알아요. 1년 반 동안 복무했어요.

● 결혼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복무 마치고, 몇 개월 있다가 한일연탄주식회사에 1973년 8월 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1975년에 중매로 결혼했지요. 같은 동네에 사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도 사진을 갖고 와야 하는데 안 갖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예뻐요. 아주 아주 잘생긴. 연애를 했어야 말씀드릴게 많은데 중매로 결혼하다보니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선택을 해버렸지요. 자녀는 삼형



약혼기념 사진(1974.12.14.)

제로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임플란트 회사에 인도 법인장으로 나가 있어요. 둘째도 따로 살고요. 막내는 저랑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일연탄주식회사

● 동양공업주식회사 이후에는 어디로 이직하셨나요?

동양공업주식회사 마무리하고, 한일연탄주식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 연탄이라는 건 연료이면서도 최고의 산업 아닙니까? 지금은 연탄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연탄 주식회사라고 하면 중요하고 산업적으로도 규모가 큰 거예요.

● 그럼 연탄은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영향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고, 취사를 해야 되니까요. 연탄이 외에는 별다른 연료가 없었죠.

말씀드리면, 연탄공장을 운영하려면, 저탄장에 저탄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계저탄자금’을 연탄공장마다 배정해줘요. 하절기 분탄 쌓아두라고 돈을 무이자로 줍니다. 무이자도 엄청난 혜택이죠. 그럼 겨울에 지장 받지 않도록 석탄을 몇 십만 톤을 갖다가 쌓아두죠. 연탄공장은 작은 게 아니라 대단위기 때문에 저탄장이 있어야 해요. 즉 석탄을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죠.

다음으로는 석탄을 이동시키는 것도 열차로 날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철도역 주변에 연탄공장이 생겼던 겁니다. 어디냐면 청량리에서 석관동 쪽이죠. 석관동 일대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서 많이 사라졌죠. 석탄가루가 날리면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석관동에는 ‘대성’, ‘삼천리’, ‘한일’ 3곳이 있었고, 전부 큰 곳들이지요. 삼표, 대성, 삼천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5

직장의료보험과 사진활동



직장의료보험 교육받은 이야기

● 선생님께서는 직장의료보험 설립위원으로 활동하셨죠?

정부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 때는 법과 사업계획, 종이, 볼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료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의료보험이에요.⁷⁾ 시행 2년 후 1979년에 직장개별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종로구에 소재를 둔 5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료보험사업장을 통합해버린 겁니다. 저는 1지구 의료보험조합이었는데

7) 구술자의 증언처럼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데, 당시에는 서울에 21개 직장의료조합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종로하고 중구에 소지를 둔 사업장만 관할을 하었는데 사실 1지구가 제일 큰 곳이었어요.

● **초창기라서 어려운 점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총무계장으로 있었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매번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교육은 복지부에서 나와서 했는데, 매주 교육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운영과 병원진료비 청구심사업무를 조합에서 했어요.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면 심사를 조합에서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병원에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기도염’ 이 뭔지 모르잖아요. 일반직원들이 전문용어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의료용어부터 내과, 치과, 외과 등 관련 용어를 다 교육 시키는 거예요. 의사들이 와서요. 또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법률에 관한 것도 매주 교육을 시켰어요.

● **교육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우선 당시에 삼일빌딩 안에는 경제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삼일빌딩 맞은편 근처에 있는 ‘원산정’ 이란 한식당 2층에 경제인연합회에서 쓰는 교육장 강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죠. 설립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하고, 사람도 있어야하고, 기구들도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가 예산이 없다보니 경제인연합회에 교육을 의뢰를 했어요. 자금도 빌려서 조합을 설립했어요. 물론 언제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고 빌린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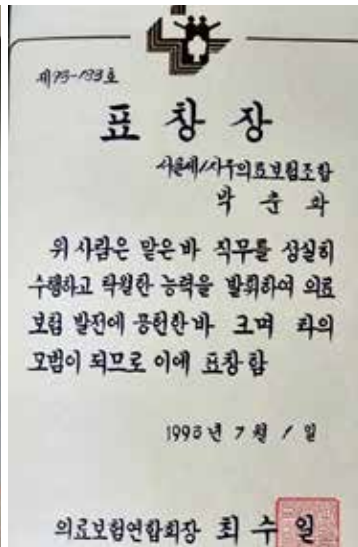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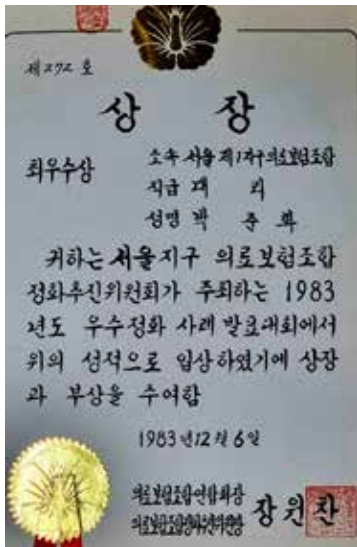
요.

교육은 한일연탄에서 총무업무 할 때 교육을 다녔어요. 교육은 복지부에서 송재성 사무관이라고 나중에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 교육 담당이었어요. 또 경제인연합회에서도 주관을 해야 하니, 운영을 하던 방인성 부장도 있었어요. 보통 교육 받으면 앞에 앉기 싫어서 뒤에 앉잖아요? 저는 방부장이랑 항상 10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계속 그렇게 몇 개월을 교육받다보니 방부장이 저를 좋게 봤어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형님, 동생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하게 되고, 물어볼 것도 많다보니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됐어요. 이런 계기로 서울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설립 준비위원으로 차출되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중추가 되다



1981년 직장의료보험조합 근무(첫줄 오른쪽 첫 번째)



서울의료보험조합 근무시절 상장 및 표창장

● 그럼 한일연탄주식회사에 다니면서 옮기시게 된 거네요?

1979년에 조합이 설립되었으니까, 그때 “당신 1지구 설립하는데 준비위원으로 차출해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차출이 된 거죠.

서울시에서 임용장을 줬어요. 가서 6개월 정도 일하고, 1979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됐죠. 그래서 한일연탄주식회사에서 직장을 옮겨 다니게 되었죠. 직장의료보험에서 직장을 마쳤죠. 한 20여 년 일했습니다.

● 한일연탄은 완전히 그만 두시고 가신건가요?

마침 한일연탄주식회사가 그때 문을 닫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난 게 아닙니다. 돈을 마대자루로 실어와요. 은행에서 쓰는 마대자루 아시죠? 한 번에 천만 원씩 들어가는 마대자루가 이문, 수색, 시흥 3개 공장에서 본사로 열두 개 정도씩 와요. 그러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70년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2층 양옥집이 40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사장님 부인이 아프고, 이런저런 일로 “나 사업 안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 퇴직금도 다주고 마무리했어요. 저는 또 마침 조합설립 준비위원으로 차출되어서 오라고 하니깐 상황이 잘 맞았죠.

조합 설립 준비위원으로 가서 1-7월까지 6개월 동안 서식개발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초기에는 피부양자신고서, 자격상실, 보험료징수고지라든지 이런 서식이 필요하잖아요.

● 그럼 직장의료보험에서 직장생활은 마무리하셨네요?

네, 퇴직할 때는 2급 부장이었어요. 부장 위가 바로 대표이사였죠. 당시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은행보다도 더 좋았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죠. 다른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호봉제도가 남녀가 같았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한참 다닐 때가 1980년대였어요. 이때는 보험료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데 자고 나면 보험료가 늘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나? 당시 300-500인 이상 사업장들은 계속 임금이 10프로 이상씩 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경제가 좋았어요. 정말 그때 경제라는 건 생각을 못해요. 제가 있을 당시인 1987-88년도에 1지구 의료보험조합에 30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은행지점장들이 조합 대표이사를 계속 만나러 옵니다. 그때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 아파트도 사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서 보문동에 계속 살았어요.

● 당시에는 정말 큰돈이었을 텐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기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기에금에는 예대(예금, 대출)마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에 커미션(commission)이 붙어요. 은행지점장이 그 예대마진을 갖고서 은행을 운영하는 거예요. 본점에서는 영업비용이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정기에금이라는 걸 기업은 할 일이 없잖아요. 예금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대출은 필요해요. 그

러니까 약 300억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약 300억이면요. 서울1지구에서 그랬었어요.

● **선생님은 노무, 회계, 노동 쪽에 정말 많은 지식이 있으세요.**

제가 앞에서 임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관계법을 6년 동안 특별히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잔업수당하면, 이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의 강의를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삼성, 엘지의 담당이사, 노동부의 근로기준국장, 서울대나 연세대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연구하시는 교수, 그리고 노무담당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 6년 정도 듣고 공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네 분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회사가 보는 관점, 변호사가 보는 관점, 시행하는 노동부의 관점, 교수가 학문적으로 보는 관점이지요. ‘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목적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운전해 갈수 있죠.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안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하나만 주장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아울러 조종해 줄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 혹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신암교회는 1937년에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보문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설립 즈음 약 50명 정도의 신도가 있었어요. 1960년대에 어머님께서 교회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신암교회 제단 및 외부

● 다른 종교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사월초파일이나 그 전후로 보문사에 절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또 저희 동네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명줄을 단다”고 그러죠? 어머님이 그걸 갖다가 달아놓으셨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가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권유로 신암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어요. 이런 경험을 인해 보문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 교회 행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근래에 와서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나눠서들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사순절 같은 건 기억도 못하고 그랬을 때예요. 제일 널리 알려진 것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성극(聖劇)을 하잖아요. 그때 먹을 것도 선생님들이 주시고. 친구들이 성극할 때 대사를 제대로 전달 못하면 웃고, 서로 흥도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관심

● 선생님은 언제부터 사진을 좋아하게 되셨나요?

우선 제가 공모전 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집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저희 누님이 사대부고 다녔는데 사진반에서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에 카메라가 있어서 만지게 되었죠.

또 한 가지는 사학과는 답사를 다녀야 했기에 사진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죠. 답사를 봄, 가을로 가요. 봄, 가을에 답사를 가게 되면 보통 3박 4일, 길 때는 4박 5일까지 지낸 적도 있어요. 답사장소는 오래된 사찰건축물유적지를 가지요. 그러면은 그건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기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도 있었고 하니 답사를 가면 사진을 찍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사진기를 자주 다루게 되었고, 사진도 프린트하러 다니고 인화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가깝게 접하게 되었어요.

또 유적지 발굴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시 단국대에 정영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양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사천 발굴도 하고, 발굴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본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지만, 제가 고고학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눈에 띄었는지 “너 이번 사천 발굴 있는데 거기 언제까지 와” 그래서 발굴에 참여도 했어요. 근데 발굴을 가면 다 실측을 하고 사진으로 기록도 남겨야 하고요. “사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회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본격적으로 했어요.



한양대학교 고고학 발굴 현장

● 성경학교 교사를 하셨나요?

네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나면, 보고를 했는데, 다른 교사들은 구두보고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되겠다. 영상으로 해줘야 보존되고, 내용이 잘 전달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영상 보고를 하면서 후일에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영상보고를 교회에서 했었죠. 그랬더니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러다가 다큐멘터리영상도 만들게 되었어요. 영상편지를 할 때에는 “사진을 이렇게 이야기 전개를 해야 되구나” 라면서 조금씩 익히게 되었어요. 또 교회에서 화보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제가 찍은 사진을 사용했어요. 자연스레 제작을 해야 해서 사진에 대해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리게 된 거죠.

사진공모전 수상

●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진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충무로를 출입하게 되었거든요. 사진현상소가 제일 많은 곳이 충무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로 쪽에 다니다보니 아마추어 사진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사진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보고 서로 찍은 사진을 구경도 해보고 출사도 나가고 했는데, 당시에 프로사진 작가들도 함께 다니고 했어요. 사진가 박옥수 씨도 있었고, 상업사진 1호이신 김한용 씨도 있었어

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홍순태 교수님에게 수년 동안 사사받기도 하고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는 민족사진가회에서 교육과 활동을 여러 해 했었습니다.



낙산에서 촬영한 성북구 전경



흥천사 전경



정릉 전경

● 직장 다니면서 사진공모전에 지원하셨네요.

네, 직장 다니면서 공모전에 출품을 하게 됐어요. 제가 환경부 장관상도 받고 그랬어요. 상도 받다보니깐 사진에 몰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깐 저는 공모전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진 전공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구분하는 이유는 80년대부터 사진전공자들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전에는 전부다 사진공모전 출신들이에요. 그러다보니 이론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죠. 사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사진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별로도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다보니 스튜디오도 운영하게 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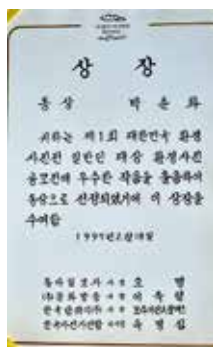
제4회 한국환경사진공모전 입상
(1995.6.1.)



후지필름 창작사진전 특선
(1995.11.27.)



동작구 사진전 동상
(1996.10.11.)



제1회 대한민국 환경사진전 동상
(1997.2.18.)

사진에 대한 생각과 계획

● 선생님은 사진관도 운영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세요.

사진은 ‘말’ 이거든요. 한 낱말로서는 말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문장이 돼야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사진은 문장인거죠. 다시 바꿔 얘

기하면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상대방 내지는 수신자들에게 송신자 입장에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진의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웨딩사진이나 이런 건 잘 안했어요. 주로 하수회꽃꽂이 같은 데서 주문 제작이죠. 최근에 학교에서 자기네 홍보물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도 해요.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돈보다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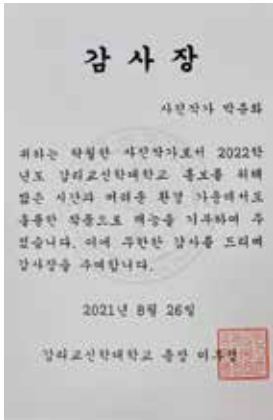
● 사진전도 하셨나요?



사진전은 3번을 했는데요. 어떤 주제냐 하면 생명이 주제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천함보다 귀하고 존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나만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작품개관전 국민일보 기사
(2021.3.9.)

● 사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감리교신학대학교 감사장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사진은 할 겁니다. 작업을 1년에 일주일 하시는 작가분도 계시고, 매일 작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깐 어떤 정해진 답은 없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는 매일 작업을 하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문동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보문동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나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 일들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에게는 교육적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에 교육이 잘되면 이웃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정신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애

이미지 출처

- 14쪽: 박춘화 촬영
- 18쪽: 박춘화 촬영
- 21쪽: 박춘화 제공
- 23쪽: 박춘화 제공
- 26쪽: 박춘화 제공
- 32쪽: 박춘화 제공
- 34쪽: 박춘화 촬영
- 36쪽: 박춘화 촬영
- 37쪽: 박춘화 촬영
- 40쪽: 박춘화 촬영
- 45쪽: 박춘화 촬영
- 48쪽: 박춘화 촬영
- 50쪽: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 51쪽: 박춘화 촬영
- 53쪽: 박춘화 촬영
- 60쪽: 박춘화 촬영
- 62쪽: 박춘화 제공
- 68쪽: 박춘화 제공
- 72쪽: 박춘화 촬영
- 76쪽: 박춘화 제공

80쪽: 박춘화 촬영

82쪽: 박춘화 제공

84쪽: 박춘화 촬영

85쪽: 박춘화 촬영

86쪽: 박춘화 제공

87쪽: 국민일보(2021년 3월 9일 기사)

88쪽: 박춘화 제공

89쪽: 박춘화 촬영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의 여섯 번째 주인공은
보문동 토박이 박춘화 구술자입니다. 책의 구성은
1부 맹꽂이 잡던 시절, 2부 보문동의 변화와
성북천, 3부 보문동 한옥과 전차, 4부 대학생활과
직장이야기, 5부 직장의료보험과 사진활동으로
하여 시간 순으로 주제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이 책은 보문동에서 나고 자란 박춘화 님의
인생이야기를 뛰어넘어 한국근현대사의 중요한
지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술자와 오랜 시간 구술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제 시대를 관통했던 그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